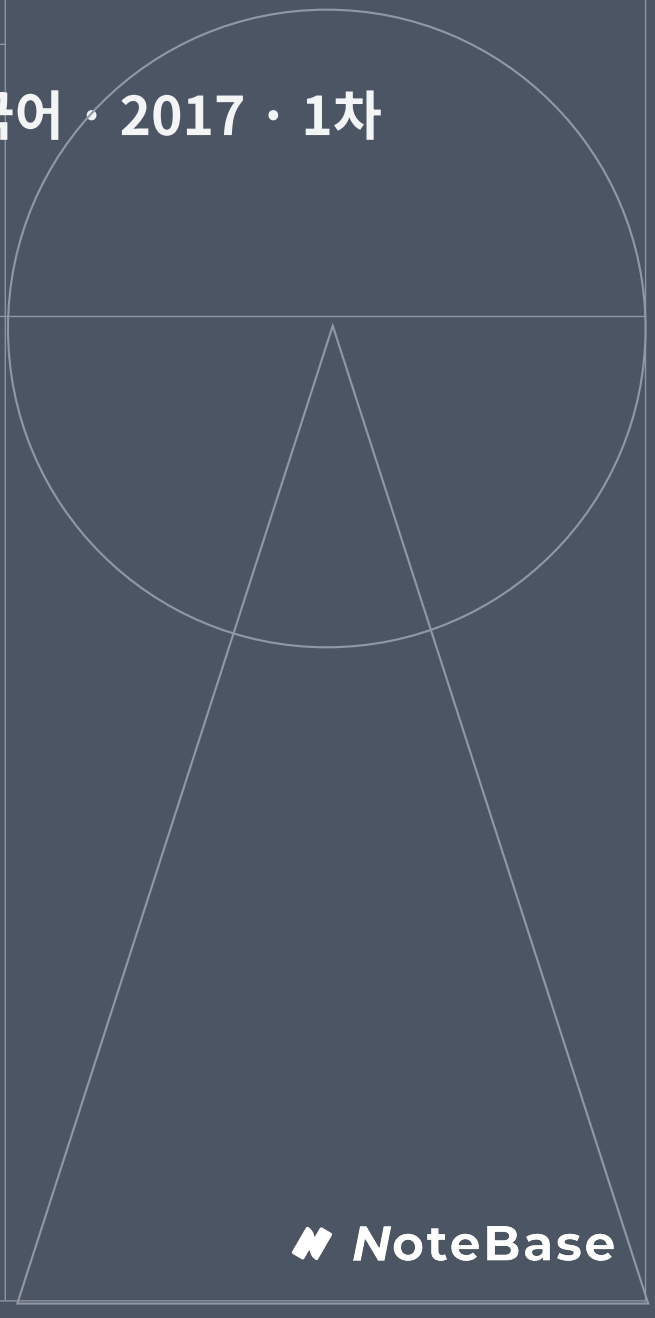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7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7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7 · 1차

문 1.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① 시계 [시계/시게]

② 문법 [문뻡/뭄뻡]

③ 읊고 [읍꼬]

④ 되어 [되어/되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표준 발음이 허용되는 경우와 실제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발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 발음은 원칙 발음 하나만을 뜻하지 않는다. 표준 발음법이 허용 발음을 함께 제시하면 두 발음이 모두 표준 발음이지만, 현실에서 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에 없는 발음까지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시계'는 [시계]와 [시게]가 모두 표준 발음이다.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두 발음이 모두 허용된다.
② X — '문법'의 표준 발음은 [문뻡]이다. [뭄뻡]처럼 첫 음절의 받침 'ㄴ'을 'ㅁ'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문뻡/뭄뻡]'이며, 올바르게는 '문법 [문뻡]'이다.
③ O — '읊고'는 [읍꼬]로 발음한다. 자음 앞에서 겹받침 'ㅭ'은 [ㅂ]으로 발음되고, 뒤의 'ㄱ'이 된소리 [ㄲ]로 발음되어 [읍꼬]가 된다.
④ O — '되어'는 [되어]를 원칙으로 하되 [되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두 발음이 모두 표준 발음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표기에 가까운 발음만 옳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반대로 ②는 자음이 연달아 나올 때 흔히 일어나는 발음 변화를 무조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면 속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빗금으로 병기된 두 발음이 실제로 모두 허용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빗금으로 두 발음이 제시되면 각 발음을 따로 검토한다. ‘ㅖ’의 [ㅔ] 발음 허용, ‘되어’의 [되여] 발음 허용, 겹받침의 대표음과 된소리되기를 먼저 확인하고, 규정상 근거 없이 자음의 조음 위치만 바뀐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시계는 [시계/시게], 되어는 [되어/되여], 읊고는 [읍꼬], 문법은 [문뻡]이다.

NoteBase

문 2.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③ 음절 초에 'ㄲ', 'ㄸ', 'ㅃ'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어의 음운적·문법적·화용론적 특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음운적으로 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평음·경음·격음의 세 계열로 대립하며, 음절 초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 문법적으로는 실질 형태소에 조사와 어미가 차례로 결합하는 교착어이다. 화용론적으로는 소유를 직접 표현하기보다 어떤 대상이 누구에게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존재 중심의 성격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평음-경음-유성음'이다. 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성대의 긴장과 기식의 차이에 따라 '평음-경음-격음'의 3항 대립을 이룬다.
② X — 틀린 표현은 '굴절어적'이다.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어근이나 어간 뒤에 차례로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교착어적' 특성을 보인다.
③ X — 'ㄲ', 'ㄸ', 'ㅃ' 등을 둘 이상의 자음이 결합한 자음군으로 본 부분이 틀렸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자음으로 기능하는 경음이며, 현대 국어의 음절 초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
④ O — 국어에서는 소유 관계도 '나에게 책이 있다'처럼 소유 대상의 존재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존재 중심의 언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유성음'을 '격음'과 바꾸어 놓았고, ②에서는 조사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굴절어의 특징처럼 제시했다. ③에서는 글자 모양이 겹쳐 보이는 경음을 실제 자음군으로 오인하게 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의 특질은 음운에서는 평음·경음·격음과 음절 초 자음 하나, 문법에서는 조사·어미가 붙는 교착어, 화용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존재 중심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국어는 평음·경음·격음, 교착어, 음절 초 자음 하나, 존재 중심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탈락 :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② 첨가 : ‘ㄴ’ 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③ 축약 :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④ 교체(대치) :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라 탈락·첨가·축약·교체를 구분하고, 각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고,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며,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현상이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의 겹받침이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탈락이고, 유기음화는 두 자음이 거센소리 하나로 합쳐지는 축약이며, 유음화는 ㄴ이 인접한 ㄹ의 영향으로 ㄹ이 되는 교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자음군 단순화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는 부분이 틀렸다.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이 음절 끝에 놓이거나 뒤에 자음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면 일반적으로 겹받침 중 한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로 보지 않는다.

② O — ㄴ 첨가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의 말이 ㅣ 또는 반모음 [j]로 시작하는 결합 환경에서 없던 ㄴ이 덧붙는 현상이므로 첨가에 해당한다.

③ O — 유기음화는 ㅎ과 ㄱ·ㄷ·ㅂ·ㅈ이 만나 각각 ㅋ·ㅌ·ㅍ·ㅊ과 같은 거센소리 하나로 실현되는 현상이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④ O —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의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자음군 단순화가 겹받침과 관련된다는 점은 맞지만 발생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는가’와 ‘겹받침이 음절 끝에 남거나 뒤에 자음이 오는가’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동 전후의 음운 수를 비교한다. 음운이 줄면 탈락이나 축약, 늘면 첨가, 수는 같고 다른 음운으로 바뀌면 교체이다. 이어서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이 음절 끝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환경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하나 탈락, ㄴ 첨가는 새 ㄴ 추가, 유기음화는 두 자음이 거센소리 하나로 축약, 유음화는 ㄴ이 ㄹ로 교체이다.

NoteBase

문 4.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첫사랑 ㉡ 횟수 ㉢ 등굣길 ㉣ 소나깃밥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일정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날 때 적으며, 두 한자어가 결합한 말은 정해진 예외에만 적는다. 이 문제는 각 단어의 ㅅ이 실제 사이시옷인지와 사이시옷 표기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순우리말 합성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두 한자어로 이루어진 말은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지만,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에는 예외적으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첫사랑'에서 ㅅ은 '첫'이라는 말에 본래 들어 있는 받침이지 사이시옷이 아니다. 또한 사이시옷을 올바르게 적은 ㉢이 빠졌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② X — ㉠의 ㅅ은 사이시옷이 아니며, ㉣은 '소나깃밥'이 아니라 '소나기밥'으로 적는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③ O — ㉡ '횟수'는 두 한자어가 결합한 말 가운데 사이시옷을 적는 여섯 예외 중 하나이다. ㉢ '등굣길'은 한자어 '등교'와 순우리말 '길'이 결합했고 뒷말 '길'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④ X — ㉡과 ㉢은 맞지만 ㉣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었다. '소나깃밥'의 틀린 부분은 '깃'이며, 올바른 표기는 '소나기밥'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첫사랑'의 받침 ㅅ을 사이시옷으로 착각하거나, 모든 합성어에서 된소리처럼 들리면 기계적으로 ㅅ을 넣는 것이 함정이다. ㅅ의 정체와 합성어의 구성, 실제 발음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뒷말의 된소리나 ㄴ 소리 첨가가 있는지 판단한다. 두 요소가 모두 한자어이면 원칙적으로 적지 않고,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의 여섯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첫사랑의 ㅅ은 본래 받침, 횟수는 한자어 예외, 등굣길은 등교와 길의 결합, 소나기밥에는 사이시옷이 없다.

NoteBase

문 5.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저 나뭇잎은 참 빨갛다.

① 저
② 은
③ 참
④ 빨갛-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소를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동작·상태 등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관계나 기능을 나타낸다. 자립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에 기대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지만,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한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인 '빨갛-'은 상태의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면서 어미와 결합해야 하는 의존 형태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저'는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로 실질적 의미가 있고 홀로 하나의 단어로 쓰이므로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다. 틀린 분류인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로 분류한다.
② X — '은'은 앞말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이다. 틀린 분류인 '실질 형태소' 대신 '형식 형태소'로 분류한다.
③ X — '참'은 '매우'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실질적 의미가 있고 홀로 하나의 단어로 쓰이므로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다. 틀린 분류인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로 분류한다.
④ O — '빨갛-'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어간이므로 실질 형태소이고, '-다'와 같은 어미에 기대어 쓰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 포인트

'실질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서로 반대되는 분류로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두 용어는 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두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다. 특히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형식 형태소이고,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형태소가 대상·동작·상태 같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판단하고, 다음으로 홀로 쓰일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용언의 어간은 의미가 있으면서 어미와 결합해야 하므로 '실질＋의존'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고,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NoteBase

문 6.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① 제1항
② 제2항
③ 제3항
④ 제4항

정답 3번

쟁점

외래어 표기법 제1장에 정해진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받침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외래어 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이다. 'ㄷ'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제1항은 외래어를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한다.
② O — 제2항은 외래어의 1음운을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고 규정한다.
③ X — 제3항에 'ㄷ'을 받침으로 쓸 수 있다고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고, 올바른 표현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이다.
④ O — 제4항은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받침 목록에 'ㄷ'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혼동하게 한다. 외래어 표기에서는 받침의 소릿값이 비슷하더라도 'ㄷ'을 받침 글자로 쓰지 않고 'ㅅ'을 사용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래어 표기의 받침 원칙을 묻는 경우에는 제시된 목록을 7개 받침 'ㄱ, ㄴ, ㄹ, ㅁ, ㅂ, ㅅ, ㅇ'과 대조한다. 목록에 'ㄷ'이 들어 있으면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외래어 받침은 'ㄱㄴㄹㅁㅂㅅㅇ' 7개이며, 'ㄷ'은 쓰지 않는다.

NoteBase

문 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장]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ᄒᆞ·ᄆᆞᆯ·씨
곶 ᄒᆞ·고·코 여·름 ·하ᄂᆞ·니
ᄒᆞ·시·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ᄒᆞ·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125장]
千世 우·희 미·리 定·ᄒᆞ·샨 漢水北·에
累仁開國·ᄒᆞ·샤 卜年·이 ᄒᆞ·ᄀᆞᆮ ᄒᆞ·업·스시·니
聖神·이 ᄒᆞ·니·ᅀᆞ샤·도 敬天勤民·ᄒᆞ샤·ᅀᆞ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ᄅᆞ쇼·셔 洛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ᄒᆞ샨', '아ᄅᆞ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고'가 있었고 '미드니잇가'는 상대 높임법의 ᄒᆞ쇼셔체에 해당한다.

③ '-시/샤-'(주체 높임법), '-ᄉᆞᆸ/ᄉᆞᆸ-'(객체 높임법), '-이/잇-'(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 조사 '아'는 ㅎ종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④ 주격 조사 '이'는 '이' 뿐만 아니라 'ㅣ'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에, 예'나 'ᄋᆡ,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와 높임법, 의문형 어미, 격 조사의 형태와 기능을 자료 속 실제 용례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앞말의 끝소리에 따라 '이', 'ㅣ', 또는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부사격 조사도 '애', '에', '예', '의', '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의문형 어미는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물음과 가부를 판단하는 물음에 따라 달리 쓰였고, 높임법은 주체·객체·상대 높임을 담당하는 형태가 구별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는 시기 설명이 부정확하다.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인칭법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로 쓰였지만, 그 기능은 중세 국어 말기부터 약화되어 근대 국어 시기에 소멸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의 어미를 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의문사가 있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는 '-니잇고'가, 예·아니요의 판단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는 '-니잇가'가 쓰인다. 자료의 '미드니잇가'는 상대를 높이는 하쇼셔체의 판정 의문형이다.

③ X
주체 높임 '-시/샤-', 객체 높임 '-솝/습/잡-', 상대 높임 '-이/잇-'의 구별은 타당하지만, '아'를 높임의 호격 조사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자료의 '님금하'에서처럼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는 '하'이다.

④ O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와 'ㅣ'로 나타나거나 일정한 환경에서 생략되었으며, 부사격 조사도 '애', '에', '예', '의', '이' 등 여러 형태로 쓰였다. 자료의 '聖神이', '漢水北에', '洛水예', '우희' 등이 이러한 다양한 격 조사 형태를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②는 '-고'와 '-가'의 기능을 뒤바꾼 선지이고, ③은 높임 선어말 어미의 설명 뒤에 잘못된 호격 조사 '아'를 섞어 놓은 선지이다. ①은 '-오/우-'의 기능보다 소실 시기의 서술을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어말 어미는 기능과 변화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의문형 어미는 의문사의 유무와 물음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격 조사는 자료에서 조사에 해당하는 형태를 직접 찾아 앞말의 끝소리와 쓰임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설명 의문은 '-고', 판정 의문은 '-가', 높임 호격은 '하', 중세 주격은 '이·ㅣ·생략'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8.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吾肹不喩慙肹伊賜㉠等	나ᄅᆞᆯ 안디 붓그리샤ᄃᆞᆫ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고ᄌᆞᆯ 것거 바도림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차자 표기에서 한자의 소리를 빌린 음차와 한자의 뜻을 빌린 훈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賜', ㉡ '☒', ㉣ '可'는 한자음을 빌린 음차이고, ㉢ '折'은 '꺾다'라는 뜻을 빌린 훈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 '賜'는 한자음 '사'를 빌려 '샤'의 소리를 나타낸 음차이다. 나머지와 다른 훈차가 아니라 ㉡·㉣과 같은 음차이다.
② X — ㉡ '☒'은 '꽃을'의 '을'을 적기 위해 한자의 소리를 빌린 음차이다. 뜻을 빌린 훈차가 아니라 음차이다.
③ O — ㉢ '折'은 '꺾다'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 '꺾-'을 나타낸 훈차이다. 한자의 소리를 빌린 ㉠·㉡·㉣과 차용 방식이 다르다.
④ X — ㉣ '可'는 한자음 '가'를 빌려 '거'의 소리를 나타낸 음차이다. 나머지와 다른 훈차가 아니라 ㉠·㉡과 같은 음차이다.

오답 포인트

한자의 원래 뜻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훈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문맥에서 '折'만 '꺾다'라는 뜻과 실제 표기 내용이 대응하고, '賜·☒·可'는 뜻과 무관하게 소리를 적는 데 쓰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한자를 현대어 대응 부분과 맞춘 뒤, 한자의 뜻이 대응하면 훈차, 한자음이 대응하면 음차로 판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뜻을 빌리면 훈차, 소리를 빌리면 음차이다. 이 문장에서는 '折=꺾-'만 훈차이다.

NoteBase

문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홑문장이 뒤의 홑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① ㉠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② ㉠ :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③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④ ㉡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연결 어미의 형태만 보지 않고,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지 종속적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열·대조·선택처럼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된 문장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조건·원인·목적·시간적 선후·배경처럼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에 종속되어 연결된 문장이다.
같은 연결 어미 '-고'라도 문맥에 따라 대등 관계 또는 종속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의 '-고'는 밥을 먹은 일이 학교에 간 일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이다.
② O — '어제는 눈이 왔다'와 '오늘은 비가 온다'라는 두 사실을 '-고'로 나란히 제시하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③ O —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든다'가 성립하는 조건을 나타내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O — '공원에 갔는데'는 뒤 절의 상황인 '사람들이 많았다'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에 모두 연결 어미 '-고'가 쓰였다는 점이 함정이다. ①의 '-고'는 시간적 선후를, ②의 '-고'는 사실의 나열을 나타내므로 두 문장의 연결 관계가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결 어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절의 의미 관계를 확인한다. 나열·대조·선택이면 대등 관계이고, 조건·원인·목적·시간적 선후·배경이면 종속 관계이다.

암기 포인트

‘-고’는 항상 대등한 연결이 아니다. 나열의 ‘-고’는 대등, 시간적 선후의 ‘-고’는 종속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호응, 조사 선택, 부정 표현과 부사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문장의 성분을 나란히 이을 때에는 각 성분이 뒤의 서술어와 모두 호응해야 한다. 또한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를 정확히 쓰고, 강한 부정에는 '결코'나 '절대로'처럼 부정 표현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는 부사를 사용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에서 '다하다'는 '사회적 책임'과는 호응하지만 '사회 현실'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공직자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이 약은'이 '사용되어 왔다'의 대상이 되고, '예전부터'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어 왔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에도 문제가 없다.

③ X
'환경을'은 타동사 '지배하다'와는 호응하지만 '순응하다'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필요하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환경에 순응하기도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하지 않는다'에는 '반드시'보다 '결코'나 '절대로'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반드시 하지 않는다'는 뜻의 범위도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앞부분의 한 성분이 뒤의 두 서술어와 모두 호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택지이다. 각각 '사회 현실-다하다', '환경을-순응하다'의 호응이 어긋난다. ④는 '반드시'를 단순한 강조 부사로 보게 하지만, 강한 부정에는 '결코'나 '절대로'가 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나란히 이어진 성분은 뒤의 서술어에 하나씩 대입하여 조사와 의미가 모두 맞는지 확인한다. 부정문에서는 부사가 부정 표현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현실은 '직시하다', 책임은 '다하다', 환경을 '지배하다', 환경에 '순응하다', 부정은 '결코·절대로'와 호응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매야 울 엄매,

㉢별 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①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②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③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④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와 시적 이미지가 문맥 속에서 드러내는 어머니의 가난한 삶, 화자의 소망, 한의 정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어의 문맥적 의미는 사전적 뜻만이 아니라 주변 시구와 작품의 정서를 함께 살펴 파악한다. 이 시에서 시장과 남은 고기는 어머니의 고단한 생계를, 은전과 먼 별밭은 가난 때문에 닿기 어려운 삶과 소망을, 글썽이고 반짝이는 옹기는 어머니의 눈물과 한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진주 장터 생어물전'은 어머니가 남은 고기를 팔며 생계를 이어 가는 곳으로,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이다.
② O — ㉡은 팔리지 않은 고기의 빛나는 눈과 손에 닿지 않는 은전을 겹쳐 놓아, 고기가 돈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난과 한을 표현한다.
③ O — ㉢ '별 밭은 또 그리 멀리'는 화자와 오누이가 바라는 밝고 따뜻한 세계가 현실의 가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④ X — ㉣의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은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과 연결되어 어머니의 슬픔과 한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틀린 표현은 '삶을 견디는 희망'이며, 올바르게는 '어머니가 품은 슬픔과 한을 상징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의 '반짝임'을 밝은 희망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바로 앞뒤의 '울 엄매의 마음', '말없이 글썽이고'와 연결하면 눈물 어린 슬픔과 한의 이미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시어의 의미는 그 시어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앞뒤의 정서어와 비유 관계를 연결해 판단한다. 특히 빛이나 반짝임도 '글썽이다'와 결합하면 희망이 아니라 눈물과 슬픔을 나타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장터는 고단한 생계, 은전은 닿지 않는 가난의 한, 먼 별밭은 이루기 어려운 소망, 옹기의 반짝임은 어머니의 눈물과 한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烏)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① 표현 기교가 뛰어난 작품으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②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그의 높은 덕을 기리고 있는 작품이다.

③ ㉠에서 화자는 지금은 없는 기파랑의 자취를 찾으며 슬퍼하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잣나무 가지와 눈에 비유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찬기파랑가」의 주제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찬기파랑가」는 화랑 기파랑을 추모하고 그의 고결한 인품과 절개를 찬양한 향가이다. ㉠의 달은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고, ㉡의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높고 굳센 절개를 상징하며 눈은 그 절개를 꺾으려는 시련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찬기파랑가」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 기파랑의 인품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제망매가」와 함께 표현 기교가 뛰어난 향가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② O. 이 작품은 기파랑의 자취를 더듬으며 그를 추모하고, 그가 지닌 높은 인품과 절개를 기린다.
③ O. ㉠에서 화자는 '흐느끼며' 지금은 없는 기파랑의 모습을 달과 구름 주변에서 찾고 있으므로 그리움과 슬픔이 드러난다.
④ X. 틀린 표현은 '잣나무 가지와 눈에 비유하고 있다'이다. 기파랑의 높은 인품과 절개를 비유하는 것은 잣나무 가지이고, 눈은 그 절개를 꺾거나 덮으려는 시련을 상징한다. 올바르게는 '기파랑의 높은 인품과 절개를 잣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같은 구절에 등장하는 '잣나무 가지'와 '눈'을 모두 기파랑의 인품에 대응시킨 것이 함정이다. 비유되는 대상과 그 대상을 위협하는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징적 시어가 연이어 나오면 각 시어가 인물의 속성인지, 그 속성을 방해하는 시련인지 관계를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높은 절개, 눈은 그 절개를 꺾으려는 시련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사또 들어가 단좌(端坐)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洋洋)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 저붐,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韻)을 낼 제,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렴(無廉)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政體)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 '아뿔싸, 일이 났다.'

① ㉠: 잔치에 어울리는 비교적 빠른 장단을 일컫는다.

② ㉡: 언어유희적 표현에 의해 해학성이 나타난다.

③ ㉢: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④ ㉣: 운봉은 걸인이 어사또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판소리계 소설의 장단, 언어유희, 서술자 개입,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진양조는 판소리에서 매우 느린 장단이다. 언어유희는 한 표현에 둘 이상의 뜻을 겹치거나 비슷한 소리를 활용하여 웃음을 만드는 방식이고,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직접 개입하여 사건이나 표현의 뜻을 풀이하거나 평가하는 서술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비교적 빠른 장단'이다. 진양조는 판소리 장단 가운데 매우 느린 장단이므로, '잔치에 어울리는 비교적 빠른 장단'이 아니라 느린 장단이라고 해야 한다.
② O —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는 갈비 음식을 먹고 싶다는 뜻과 앞서 운봉의 갈비를 발로 찬 상황을 겹쳐 표현한다. 말의 중의성을 이용하여 긴장된 장면에 해학성을 만든다.
③ O — 서술자가 '이 글 뜻은'이라고 직접 나서 어사또가 지은 한시의 의미를 우리말로 풀이한다. 이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④ O — 운봉은 백성의 피와 기름을 착취하는 수령을 비판한 시를 읽고 속으로 '아뿔싸, 일이 났다.'라고 생각한다. 이 내면 독백은 그가 걸인의 비범한 정체, 곧 어사또임을 눈치챘음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잔치 장면이라는 상황만 보고 ①의 '빠른 장단'을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장단의 성격은 장면의 분위기가 아니라 장단 자체의 고유한 빠르기로 판단해야 하며, 진양조의 핵심은 매우 느린 장단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표현의 사전적·갈래적 의미와 앞뒤 문맥을 분리해 확인한다. 장단은 고유한 빠르기, 대사는 중의성, 서술은 서술자의 직접 개입, 내면 독백은 인물의 인식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진양조는 매우 느린 장단이고, '이 글 뜻은'은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 원!
신세 간 데 없지요.
자, 십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身分)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 가지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짚검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삯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해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수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① ㉠ :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씀.

② ㉡ : 더할 수 없이 매우 가난함.

③ ㉢ : 끈기가 있고 모짊.

④ ㉣ :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낯선 어휘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공은 힘을 들여 애를 쓰는 일, 철빈은 더할 수 없이 심한 가난, 칙살스럽다는 하는 짓이나 말이 잘고 다라운 태도, 후분은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적공은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쓰는 것을 뜻하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철빈은 더할 수 없이 매우 가난한 상태를 뜻하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③ X
칙살스럽다를 '끈기가 있고 모짊'이라고 풀이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하는 짓이나 말이 잘고 다라운 데가 있다'라는 뜻이다. 문맥에서도 여러 궂은 벌이를 치사하고 자질구레한 일로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

④ O
후분은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를 뜻하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칙살스럽다'를 문맥상 악착같이 생계를 꾸리는 모습과 연결해 '끈기가 있고 모짊'으로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인물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뜻이 아니라, 하는 짓이나 말이 잘고 다랍다는 부정적 의미의 어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어휘는 주변 인물의 행동만 보고 뜻을 추측하지 않고, 단어 자체의 긍정적·부정적 의미와 문장 속 화자의 평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칙살스럽다=잘고 다랍다, 적공=애씀, 철빈=극심한 가난, 후분=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이다.

NoteBase

문 15.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 원!
신세 간 데 없지요.
자, 십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身分)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가지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짚검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삯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해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수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① 작가는 판소리 사설을 차용하여 풍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② 소설 속 관찰자가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③ 결과적으로 긍정적 서술자가 부정적 인물인 아저씨를 비판한다.

④ 현실적 삶의 방식과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채만식의 「치숙」에 나타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반어적 풍자의 원리를 묻는다. 서술자의 평가와 작가의 의도가 일치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인물인 서술자가 관찰한 대상과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전하는 방식이다. 이 작품에서는 세속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조카가 아저씨를 비난하지만, 독자는 그 말의 모순과 과장을 통해 오히려 조카의 속물성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서술자의 평가와 작가의 실제 의도가 어긋나는 반어가 풍자를 형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아따', '저 거시기', '뭐, 말도 마시오'처럼 청중에게 말을 거는 듯한 구어적 표현, 반복과 열거가 판소리 사설과 같은 말맛과 리듬을 만든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조카의 과장되고 모순된 태도를 드러내 풍자성을 강화한다.

② O —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내 원!'에서 작품 속 관찰자인 조카가 아저씨의 처지를 소개하면서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이라는 자신의 판단까지 독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긍정적 서술자'와 '부정적 인물인 아저씨'이다. 올바르게는 부정적·속물적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조카가 아저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작가는 그 서술을 반어적으로 제시하여 조카의 왜곡된 가치관을 풍자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 조카는 경제적 이익과 개인의 안락을 중시하는 현실적·세속적 삶의 방식을 보이고, 아저씨는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제시된다. 두 삶의 방식이 조카의 서술 속에서 대비되어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서술자가 아저씨를 비판한다는 표면만 보고 서술자를 작가의 대변자로 오인하게 만든다. 그러나 조카의 비인간적인 말과 속물적 가치관은 서술자의 판단을 그대로 믿을 수 없게 하며, 풍자의 실제 표적이 조카임을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인칭 서술자가 강한 평가를 내릴 때에는 그 평가를 곧바로 작가의 생각으로 보지 않는다. 서술자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지, 독자가 그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보도록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반어적 풍자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치숙」은 '조카가 아저씨를 비난하는 말'을 통해 오히려 조카의 속물성을 드러내는 반어적 풍자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환웅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이다.—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고 부르니, 이분이 곧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의 삼백예순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敎化)하였다.

① ㉠: 桓雄, ㉡: 神壇水

② ㉠: 桓雄, ㉡: 神壇樹

③ ㉠: 桓熊, ㉡: 神端水

④ ㉠: 桓熊, ㉡: 神端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과 한자의 뜻을 바탕으로 '환웅'과 '신단수'의 정확한 한자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웅은 桓雄으로, '웅'은 영웅·웅장 등에 쓰이는 雄이다. 신단수는 神壇樹로, 신성한 제단을 뜻하는 壇과 나무를 뜻하는 樹를 쓴다.
헷갈리는 글자는 熊(곰 웅), 端(끝 단), 水(물 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 桓雄은 맞지만, ㉡의 '水'는 '물 수'이므로 틀리다. '신단수'의 '수'는 나무를 뜻하는 樹이므로 神壇樹로 고쳐야 한다.
② O — '환웅'은 桓雄, '신단수'는 神壇樹로 표기한다. 각 글자의 음과 뜻이 모두 문맥에 맞는다.
③ X — ㉠의 '熊'은 '곰 웅'이므로 桓雄의 雄으로 고쳐야 한다. ㉡도 '端'은 '끝 단', '水'는 '물 수'이므로 틀리며, 神壇樹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의 '熊'은 '곰 웅'이므로 雄으로 고쳐야 하고, ㉡의 '端'은 壇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표기는 각각 桓雄과 神壇樹이다.

오답 포인트

한자의 음만 보면 熊과 雄은 모두 '웅', 端과 壇은 모두 '단', 水와 樹는 모두 '수'여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환웅은 고유 명칭 桓雄이고, 신단수는 물이 아니라 신성한 제단의 나무이므로 神壇樹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음의 한자가 제시되면 음만 맞추지 않고 문맥상의 뜻을 확인한다. '곰'이면 熊, '수컷·웅장함'이면 雄이고, '끝'이면 端, '제단'이면 壇이며, '물'이면 水, '나무'이면 樹이다.

암기 포인트

환웅은 桓雄, 신단수는 신성한 제단의 나무인 神壇樹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내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① 殃及池魚
② 渴而穿井
③ 亡羊補牢
④ 死後藥方文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낡은 집을 제때 고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일을 통해, 잘못이나 폐단을 미루지 말고 바로 고쳐야 한다는 교훈과 한자 성어의 의미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渴而穿井(갈이천정)은 목이 마른 뒤에야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준비를 미루다가 일이 닥친 뒤에 서두르는 상황을 이른다.
亡羊補牢(망양보뢰)는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잘못이나 손실이 생긴 뒤라도 고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이른다.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은 사람이 죽은 뒤에 약 처방을 내린다는 뜻으로, 때를 놓친 뒤에 대책을 세워 소용이 없음을 이른다.
殃及池魚(앙급지어)는 재앙이 연못의 물고기에게까지 미친다는 뜻으로, 뜻밖의 재앙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이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殃及池魚는 애꿎은 사람에게 재앙이 번지는 것을 뜻한다. 지문은 무관한 사람의 피해가 아니라 수리와 개혁을 미룰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내용을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재앙이 죄 없는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상황에 쓰는 성어이다.
② O — 渴而穿井은 목이 마른 뒤에 우물을 파는 것처럼, 미리 대비하지 않다가 일이 급해진 뒤에 서두르는 경우를 뜻한다. 비가 새는 줄 알면서도 수리를 미룬 지문의 상황과 통한다.
③ O — 亡羊補牢는 손실이 생긴 뒤라도 잘못을 고쳐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뜻이다.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지문의 교훈과 통한다.
④ O — 死後藥方文은 때가 이미 늦은 뒤에 대책을 마련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백성과 나라가 위태해진 뒤에야 개혁하면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문의 경계와 통한다.

오답 포인트

네 성어가 모두 재앙이나 잘못과 관련되어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②·③·④는 모두 대비·수습의 시기가 늦는 문제와 연결되지만, ①은 '피해가 관계없는 대상에게 번짐'을 나타내어 지문의 핵심인 '잘못을 제때 고침'과 의미축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의 교훈을 먼저 '일이 악화되기 전에 잘못을 고쳐야 한다'로 압축한 뒤, 각 성어가 말하는 핵심 관계를 대조한다. '늦은 대비·사후 수습'인지, '무고한 대상에게 번진 피해'인지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갈이천정·망양보뢰·사후약방문은 늦은 대비나 수습, 앙급지어는 애꿎은 피해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한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① 이화우(梨花雨) 흣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ᄒᆞᆫ 님,
추풍 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ᄂᆞᆫ가.
쳔 리에 외로운 ᄭᅮᆷ만 오락가락 ᄒᆞ노매.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ㅣ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ᄌᆞ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ᄌᆞᆼ(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③ 반ᄌᆞᆼ(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ᄂᆞ다.
유자(柚子)ㅣ 안이라도 품엄 즉도 ᄒᆞ다마ᄂᆞᆫ
품어 가 반기리 업슬ᄉᆡ 글노 설워ᄒᆞᄂᆞ이다.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ᄒᆞ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ㅣ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ᄂᆞᆫ 객(客)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시의 핵심 정서인 국권 상실의 비애와 망국을 지켜보는 지식인의 고뇌를 파악하고, 이를 나라의 흥망을 슬퍼하는 작품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槿花世界已沈淪’은 무궁화 세계, 곧 조선이 이미 몰락했음을 뜻한다. 화자는 책을 덮고 오랜 역사를 회고하면서 나라가 망한 시대에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괴로움과 비애를 드러낸다. 따라서 개인적 이별·자연 속 한정·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정서가 판단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천 리에 외로운 꿈'에는 임과 헤어진 뒤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나타난다. 틀린 부분은 이 개인적 이별의 정서를 제시문의 망국에 대한 비애와 같다고 보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② X — '청산', '유수', '청풍', '명월'과 더불어 '분별 없이 늙으리라'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늙어 가려는 한정과 안분지족을 드러낸다. 틀린 부분은 이러한 자연 친화적 정서를 망국의 슬픔과 같다고 보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세속적 욕심에서 벗어난 삶의 태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③ X —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과 '반기리 없을새'에는 홍시를 보고 돌아가신 부모를 떠올리는 효심과 그리움이 나타난다. 틀린 부분은 부모를 향한 사친의 정을 망국의 비애와 같다고 보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④ O — '흥망', '오백 년 왕업', '만월대', '추초'는 고려 왕조의 멸망과 무상함을 환기하며, 지나가는 객이 눈물을 흘리는 데서 망국을 슬퍼하는 정서가 나타난다. 이는 조선의 몰락 앞에서 비애와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낸 제시문과 가장 유사하다.

오답 포인트

네 작품에 모두 슬픔이나 쓸쓸함이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서로 다르다. ①은 임과의 이별, ③은 부모의 부재에서 비롯된 슬픔이고, ②는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이다. 제시문의 '槿花世界已沈淪'과 ④의 '오백 년 왕업'이 사라진 상황을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서의 겉모습만 비교하지 않고 그 정서를 일으킨 대상과 상황을 먼저 확인한다. 제시문에서 '조선의 몰락'이 원인임을 잡은 뒤, 선지에서 '왕조의 멸망'을 노래한 작품을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무궁화 세계의 침몰은 조선의 멸망이고, 오백 년 왕업의 몰락은 고려의 멸망이다. 두 작품은 모두 망국의 비애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경 머루 먹듯 :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취함.

② 재미난 골에 범 난다 : 즐거운 일을 찾아 계속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

③ 깻묵에도 씨가 있다 :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물건에도 제 속은 있음.

④ 가물에 돌 친다 : 가뭄에 도랑을 미리 치워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속담의 표면적 장면에 끌리지 않고, 관용적으로 굳어진 실제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속담은 오랜 세월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이므로, 낱말의 겉뜻이 아니라 전체 표현이 비유하는 의미로 판단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재미난 골'과 '범'이 각각 즐거움과 그 속에 도사린 위험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경 머루 먹듯'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아무것이나 취하는 모습을 비유하므로 뜻풀이가 적절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즐거운 일을 찾아 계속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이다. 실제로는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③ O — '깻묵에도 씨가 있다'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물건에도 나름의 속이나 실속이 있음을 이르므로 뜻풀이가 적절하다.
④ O — '가물에 돌 친다'에서 '돌'은 도랑을 뜻하며, 물이 없는 가뭄 때 미리 물길을 손질해 두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사전에 준비해야 함을 비유하므로 뜻풀이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재미난'이라는 긍정적 표현만 보고 성공이나 성장의 뜻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뒤의 '범 난다'는 위험과 화를 나타내므로, 이 속담은 즐거움에 빠져 위험한 일을 계속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속담의 앞부분만 따로 해석하지 않고 앞뒤 장면의 관계를 함께 본다. 특히 뒤에 위험·손해·화가 나타나면 앞의 행동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경계하는 말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재미난 골에는 범이 난다. 지나친 재미 뒤에는 큰 화가 따른다.

NoteBase

문 20. 토론에서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련 자료, 주변 상황, 관점 등을 검토하여 논제를 이해한다.

②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쟁점을 찾아 핵심 쟁점과 하위 쟁점을 정리한다.

③ 차이를 극복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④ 주장의 전제나 논거를 검토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토론의 쟁점을 파악하는 활동과, 파악된 쟁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쟁점 파악은 논제를 이해하고 양측 주장의 충돌 지점과 그 근거를 분석하여 무엇이 논란인지 분명히 하는 활동이다. 반면 해결 방안 모색은 파악된 쟁점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할 대안을 찾는 후속 활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련 자료, 주변 상황, 여러 관점을 검토하면 논제의 의미와 배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쟁점 파악에 적절하다.

② O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 핵심 쟁점과 하위 쟁점으로 정리하는 것은 쟁점 파악의 중심 활동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이다. 이는 쟁점 자체를 파악하는 활동이 아니라, 차이를 조정하고 해결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올바르게는 양측 주장이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와 그 원인을 검토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주장의 전제와 논거를 검토하면 각 주장이 타당한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도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이어서 적절해 보이지만, 문제는 토론 전반이 아니라 '논제의 쟁점 파악' 단계만 묻는다.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은 쟁점을 찾은 뒤의 해결·조정 단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논제의 배경·충돌 지점·주장의 전제와 논거를 분석하면 쟁점 파악이고, 합의안·대안·해결책을 찾으면 쟁점 파악 이후의 해결 방안 모색이다.

암기 포인트

쟁점 파악은 '무엇이 왜 충돌하는가', 해결 방안 모색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이다.

NoteBase